



전북수의사회 회관, 전주 만성중앙로로 이전

전북수의사회(회장 이종환)가 덕진구 만성중앙로 53-46(402호)로 전북수의사회회관을 새로 이전했다. 전북수의사회는 8일 기존 회관의 예로 적었던 주차장 이용 불편과 공간협소 등을 개선하고자 전주 덕진구 만성동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으로 전북수의사회는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원 헬스'를 비전으로 동물건강과 복지는 물론 가족전염병 방역, 동물자원의 육성과 활용으로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의학적 전문적인 지식을 다하여 동물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며 공중보건 향상과 동물자원 보호, 수의학기술 발전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북수의사회는 1952년 9월 전국 최초로 조직돼 7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유서 깊은 공익단체이다. /김재훈 기자

정읍 덕천면 '아이스크림 방앗간' 인기몰이

정읍시 덕천면은 무더위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아이스크림을 무료 제공하는 '아이스크림 방앗간'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덕천면에 따르면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 잠시나마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 더위를 피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답소를 나누는 등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는 얼음 생수도 함께 비치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방앗간은 덕천면 청년회가 주최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덕천면 이장협의회와 체육회 농촌지도자회 등 지역 내 기관·단체들의 후원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후원 예약자도 많은 편이다. 아이스크림 후원에 참여한 황홍규 덕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하나님 안에서의 꿈·비전'

전주대 'JJ청소년 캠프' 성료
호남지역 청소년 500여명 참석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와 신학과경배찬양학과는 최근 학생회관 수퍼스타홀에서 호남지역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JJ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JJ청소년 캠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워진 중고등부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길 소원하고,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의 회복을 통해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 기획됐다. 또한, 미자립 교회로서 스스로 수련회를 만들기 어려운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설립한 전주대학교가 지역을 영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꿈, 비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비전"이라고 전했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선교봉사처 김문택 처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지역교회 청소년과 중고등부의 활력과 부흥에 기여하고, 특히 캠프 개최가 어려운 지역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수련회 등록비용을 지원 하는 등 다음 세대의 신실한 양육과 부흥을 위해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 전주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캠프를 총괄 진행한 김정순 교수(신학과경배찬양학과)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다시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이 캠프를 통해 인생의 가치가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 참석한 학생 및 지역 목회자들은 캠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덧붙였다. /정은성기자



전주공공스포츠클럽, 미래내일 실무캠프 진행



전주공공스포츠클럽, 미래내일 실무캠프 진행

전주공공스포츠클럽은 최근 2023년 미래내일일일경험 사업의 일환인 실무캠프(인턴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3년 미래내일일일경험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통합지원센터를 수행한다. 전국 단위 사업이며 전라북도에서 (주)베스트인이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 중 실무캠프(인턴형)의 목적은 만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이해보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로 고교, 대학교 고학년 재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적합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전주시태권도협회 김성신 회장, 한중문화협회 박영진 회장, 전주공공스포츠클럽 문형호 코치 외 2명, 청년1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태권도 국가대표, 사범 지도사, 스포츠지도사 등의 미래의 직업을 꿈꾸는 10명의 청년들이며 이달 7일부터 9월 1일까지 4주간 운영된다. 전주시태권도협회 김성신 회장은 "실무캠프에 참여하여 태권도인을 꿈꾸고 지역 내 자리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직업에 대한 큰 꿈을 키우면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재훈 기자



최고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3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C.M.T. 프랜즈 팀(사진 왼쪽)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주근영중학교 New Team 팀.



도내 2개 학교,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서 입상

대상 -전북기계공업고 · 최우수상 -전주근영중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원장 김정옥)은 최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3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 도내 2개 학교가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전국대회로 지난 2011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과학교육원은 지난 8월 10일 전라북도발명인재육성협의회 주관으로 예선대회를 거쳐 선발된 3팀(초 1팀, 중 1팀, 고 1

팀)이 본선대회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선대회는 3일간 대면 심사로 진행,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C.M.T. 프랜즈 팀이 대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을, 전주근영중학교 New Team 팀이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정옥 원장은 "앞으로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발굴을 위해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엔젤요양병원, 익산 저소득가구 돕기 성금 전달

엔젤요양병원(이사장 임해곤)은 지난 7일 지역 저소득가구를 위해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임해곤 이사장은 "많은 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생계곤란까지 겪는 저소득가구에 도움을 드리고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박병립 원장도 "성금을 지원받으시고 다시 일상생활 하시는데 힘과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 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분들에게 성금을 기탁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성금을 지원하여 이웃분들에게 요긴하게 잘 쓰이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이기도 한 임해곤 이사장은 이웃을 위해 베푸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성금 1,100만원 지원, 제1회 황동 고향역 가요콘서트와 웅포 서상동경로당에 방충망 설치 성금 지원 등 나눔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장수군청 탁구팀, 실업탁구대회 여자복식 1위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탁구팀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충북 제천에서 열린 2023 추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개인복식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2023 추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는 장수군청, 양산시청 등 여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참가해 개인단식 전 개인복식전, 단체전 등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개인복식전에는 2개 조가 참가했다. 장수군청 여자탁구팀 소속인 노푸름, 최유나 선수가 결승에 올라 창단 최초 1위를 달성했다. 군은 이번 대회 결과로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탁구팀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회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 대통령배 전북 씨름왕 선발 출전... 3명 입상

정읍시가 지난 6일 부안군 일원에서 열린 '2023년 대통령배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14개 시·군에서 80여명의 선수단의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시 선수단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훈련에 매진해 대회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8명이 출전해 3명이 입상(고등부 3위, 매화급 2위, 국화급 2위)하는 등 쾌거를 이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수행 '우수' 선정

'S등급 최우수 4개 기관'에 포함

전주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이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가장 잘 수행한 S등급 최우수 4개 기관에 포함됐다. 전주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한 전국 1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 수행기관 평가에서 S등급 최우수 4개 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전주시니어클럽은 복수유형(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부분 상위 1%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주시니어클럽 외에도 금암노인복지관(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A등급), 대한노인회 전주지회(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B등급) 등 전주지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효춘 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전국 1% 상위기관이 되기까지 전주시니어클럽을 응원해주시고 협조해주셨던 전주시·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면서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그린 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대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전주시니어클럽이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가장 잘 수행한 S등급 최우수 4개 기관에 포함됐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니어클럽이 전북 지역에서 대상을 2회 수상한 최초의 노인일자리기관이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주시도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정읍경찰, 특별치안활동 범죄예방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근)는 최근 흉기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 기간 전 경찰의 역할을 집중해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역, 터미널 대형마트는 물론 야간에 인파가 밀집하는 변화기를 중심으로 행사, 교통위급,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가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안전과장(경장 정한성)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기능별 계장이 참여하는 특별치안활동 TF팀은 매일 추진사



항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예방활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은 지역사랑봉사단, 수해피해 복구 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은 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8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전해 달라며 김제시에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은 지역이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 전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기능보강 사업을 10여 년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빠른 일상 회복과 갈마 이후 찾아온 무더위 극복 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지역사랑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지역사랑봉사단 정원호 단장은 "수마로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금융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전심전력(全心全力)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봉사나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성금을 수해 피해 농가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류노태 기자